

# 검정 색 드레스에 관한 연구

## 이 서 희

건양대학교 의상, 아동학부

생활 속에 산재해 있는 색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이용되면서 하나의 상징성의 위력을 지닌다. 이는 단순한 색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각 민족,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 다양하지만 여러 색상 중 검정 색은 특히 패션 연대기를 지배해온 색상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색채의 관점에서 볼 때 옷을 매개체로 한 검정 색은 착용자의 특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옷 자체의 역할보다 더 효과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에 있어서 검정색 드레스를 복식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검정 색의 미적 가치와 디자인의 요소인 색채로 활용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초기에 검정 색은 일반적으로 가지는 부정적인 상징적 의미가 부각되어, 상복과 사제나 성직자의 의상에 사용되었으며, 유럽에서 패션을 인식하기 시작한 15세기 무렵에 와서야 검정 색에 대한 미적인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검정 색 의상이 본격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했다.

15 세기에 버진디의 공작 필립(1419~67년에 다스림)이 검정 색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장례식 때 입을 수 있는 섬세한 모양의 현대적인 옷을 만들었다.

검정 색 옷은 16세기에서 17세기를 걸쳐 스페인 귀족층의 드레스로 자리를 굳혔고 17세기 네델란드에서는 고급 층의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 사랑을 받았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소수의 벨 에포크(Belle Époque)의 우아한 여성들에게 비닐 같지 않은 무기가 되기도 했다.

검정 색 옷감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8 세기 이전 것은 당시 완전한 검정 색을 얻기 위한 자연적인 염색과 재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검정 색은 꽤 드물다. 1850년대에 소개된 인공 염색이 부식성이 있는 자연적인 염색을 대신하면서 검정 색 옷이 늘어났다. 19세기말에 여자들은 검정 색 옷 속에 몸에 꼭 맞는 코르셋을 입고 한껏 멋을 부렸다. 20세기에는 염색 방법과 재료들이 넘쳐 나면서 여러 가지의 검정 색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모든 직물들이 염색이 가능하고 빛의 반사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방법이 그것들 가능케 했다. 주름, 루슈, 누빔과 같은 기술들이 또한 색의 다양성과 함께 나타났다.

제 2차 세계 대전동안 주로 여자들은 유니폼, 전쟁에 관련된 직업 또는 전쟁시의 옷으로 통일되는 반면에 패션계에서는 검정 색의 옷감이 부족함으로 검정 상복은 장례식 때에도 드물었고 여자들은 검정 색의 옷이 유행되었다. 1950년대 카테일 파티나 이른 저녁 모임에서 작은 검정색

드레스는 지배적이었다.

검정 색은 1981년에서 1982년에 이르러 고급 패션의 영역에 퍼졌고 모든 다른 시장에도 급속히 퍼져 나갔다.

패션에 있어 검정 색의 옷, 특히 검정 색 원피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없어서는 안될 세계적인 옷이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검정 색만이 가지고 있는 선의 효과와 힘을 사용해 왔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검정 색 드레스의 각별한 역사를 고려하여 항상 그 선을 살리고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지난 오 백년 동안 검정 색 옷은 장례식 때는 물론 종교적, 학술적, 법적인 행사 옷으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패션의 우월성을 지켜왔다.

검정 색 옷을 입은 여성은 경건하게, 날씬하게, 유혹적으로, 또는 마녀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독특한 미적 특성으로 인해 검정 색은 패션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색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조형적 디자인의 요소인 색채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